



발사대에 우뚝 선 누리호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되어 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우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발사 시각 오후 4시께 유력  
순수 국내 기술 개발, 성공시 7대 우주강국 진입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위성발사체다. 이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국가 우주 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독자 우주 기술을 지닌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다.

2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21일 오후 4시(잠정)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시간은 오후 3시~7시 이내로 기상 상황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계산해 발사 시간 30분 전 확정 발표된다.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오후 4시께가 유력하다. 누리호 발사체가 이륙 이후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1·2·3단이 제 때 분리돼 점화한 뒤 3단 페어링 부분의 1.5t급 위성 모사체를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에

투입시키면 발사에 성공한다. 목표 궤도에서 위성 모사체 분리 여부 데이터 확인까지는 30여분이 소요된다. 누리호는 1-3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다. 총 길이가 아파트 16층 높이인 47.2m, 중량은 200t에 이른다. 누리호 발사는 2013년 1월30일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Ⅰ)'가 우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 8년 만이다.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발사한 한국 최초의 발사체라면, 누리호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의미가 다르다. 발사를 하루 앞둔 20일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은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주

력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일 오전 11시30분께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고정 작업을 완료했다. 이어 전원 및 연료·산화제 등 추진제 공급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21일 기상 상황이 악화하거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누리호 발사일은 22-28일로 변경된다. 발사일 변경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누리호는 1차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엔 2차 발사를 진행한다. 잠정적으로 지정된 2차 발사 예정일은 2022년 5월19일이며 1차 발사와 동일하게 발사에 정일 이후 1주일간(5월20-26일)이 발사 예비 기간으로 잡혔다. /임후성기자

## 윤석열 '전두환 찬양 망언' 호남 민심 '부글부글'

이용섭 시장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민주 시민 모욕"  
광주·전남북 국회의원 전원 "망언 규탄 후보 사퇴" 촉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성 발언과 관련,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이 20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과 관련, 긴급 성명을 내고 사죄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냈다.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전두환 찬양에 호남까지 운운하며 민주시민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죄 없는 국민들을 무참히 살인한 것 빼고 일을 잘했다니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력 앞에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권주자라는 사실 자체가 통탄하고 분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학발에 짓밟히고 무자비한 총칼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무고한 광주 시민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평생 피울을 삼키며 밤잠 이루지 못하는 오월가족들, 아직도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행방불명자의 가

족들 고통을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냐"고 재차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하며, 즉각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고 한다."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직도 생존 중인 5·18 피해자와 가족들, 나아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윤석열 후보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을 연출했고 10월에는 '5·18을 잊지 않겠다'고 썼다."면서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는 무엇이 진실이고 진실인가?"라고 물었다. 또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이미 96년 YS정부 당시, 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죄선정, 상관살해, 내란목적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판결, 확정했다."면서 "또한, 학원 사건과 부림사건,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삼정교육대 및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전두환에 의해 자행된 군사독재의 암흑은 역사에 기록된 것만으로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기자

## 전남 외국인 잇단 감염 방역당국 '진땀'

전남에서 선원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이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고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도내에서 연·근해어선 18명, 건설현장 7명 등 외국인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9

%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외국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연·근해어선 선원, 직업소개소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검사 의무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선원 감염은 검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출항함으로써 선박 내 밀집 환경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외국인 확진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로 확인됐다. 전남 외국인 접종률은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미등록 외국인 등 미접종자가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남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연·근해 어선, 직업소개소 등 진단 검사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커뮤니티,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의 예방 접종을 적극 독려해 접

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가족 감염 사례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오승지·임후성기자

**Today**  
부산엑스포 유치위해 COP28 양보? 5면  
브랜드 파워 지역발전 이끈다 9면  
최철의 문화살롱-유럽 문화도시 14면

2021 도약 "馬<sup>마</sup>한도와 南道<sup>남도</sup>가자"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 마한 문화행사

2021. 10. 26. | 화 | ~ 10. 28. | 목 |

국립나주박물관 및 전라남도 일원  
마한정상회담 및 개막식 : 10. 26.(화) 14:00

주최 전라남도 국립나주박물관 / 주관 전라남도 문화재단

**주요 행사**  
-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  
- 개막식(대선과제 공동건의)

**부대 행사**  
- 특별전 : 금은보다 귀한 옥  
- 마한 영산강길 자전거 대행진  
- 마한역사 유적탐사  
- 마한 상상미술대회  
- 뿌리깊은 마한강연  
- 마한 문화행렬 및 마한 이야기 웹툰전시

**오뎀전남튜브 LIVE**  
※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